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    |     |    |                   |    |     |
|----|-----|----|-------------------|----|-----|
| 회차 | 35차 | 일자 | 2021.08.23. 18:30 | 장소 | 온라인 |
|----|-----|----|-------------------|----|-----|

## 0 성원점검

|      |        |      |        |       |        |      |
|------|--------|------|--------|-------|--------|------|
| 간호대학 | 경영경제대학 | 사범대학 | 사회과학대학 | 약학대학  | 예술대학   | 의과대학 |
| ○    | ○      | ○    | ○      | ○     | X      | X    |
| 인문대학 | 자연과학대학 | 통일공대 | 동아리연합회 |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 계    |
| ○    | X      | ○    | ○      | X     | ○      | 9    |

## <개회>

## 1 단위별 보고

|        |                                                        |
|--------|--------------------------------------------------------|
| 간호대학   | 특이사항 없음.                                               |
| 경영경제대학 | 특이사항 없음.                                               |
| 사범대학   | 특이사항 없음.                                               |
| 사회과학대학 | 특이사항 없음.                                               |
| 약학대학   | 특이사항 없음.                                               |
| 예술대학   | 불참                                                     |
| 의과대학   | 불참                                                     |
| 인문대학   | 학생사회 수다회 진행 예정. 공모전 진행 예정.                             |
| 자연과학대학 | 불참                                                     |
| 통일공대   | 8/17 공퀴즈온더블럭 예고편 공대 유튜브에 업로드 완료. 개강하면 세차레에 나눠서 업로드 예정. |
| 동아리연합회 | 특이사항 없음.                                               |

## 2 보고안건

|                          |
|--------------------------|
| 총학생회장단                   |
| 재정정보 결의안 전달              |
| 중운위 논의 관련 후속 조치 및 문의 진행  |
| 제페토 캠퍼스 제작단 (내부) 운영 준비 중 |

|                                                    |
|----------------------------------------------------|
| 중앙집행위원회                                            |
| 2학기 개강인사 기획 중                                      |
| 1학기 학사만족도 및 등록금환불 설문조사 결과보고 업로드 예정                 |
| 교육자치) 백신 접종 출석인증 안내 게시물 업로드                        |
| 연대사업) 비건 학식 도입 관련 부처 협의 중, 비건 레시피 공모전 당첨자 상품 발송 완료 |
| 일상복지) 불법카메라 탐지 진행 완료                               |
| 전략정책) 전임교원 확충 관련 공문 발송 완료                          |

|                                                   |
|---------------------------------------------------|
| 산하위원회                                             |
| 성평위) 성평등위원장 인수인계 완료, 리쿠르팅 시행 중                    |
| 인복위) 중앙도서관 사물함 철거요원 선발 중, 의혈지킴이 시행 중              |
| 장인위) 배리어프리 지도 디자인 작업 중, 배리어프리 공지 가이드라인 추가 작업 진행 중 |
| 졸준위) 졸업기념품 선정 관련 과대표 투표 진행                        |

### 3 논의안건

#### 1. 중앙감사위원장 선발 관련 대책 논의

- 모집기간 연장 / 선발 종료 후 공석 유지
- 후속 논의

부총: 중앙감사위원장 지원자가 없다. 그래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일단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를 드리면 모집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선발 절차를 종료를 하고 남은 임기동안 공석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서 단위별 의견을 묻겠다. 이중 후자의 경우는 관례상 있는 일은 아니고 회칙에도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안도 있을 수 있어서 가져온 것이고 감안해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일주일정도 기간을 연장해보고 좀 더 기다려 보는게 좋을지?

동연.부: 동연 부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부총: 다른 의견 있는 단위는 말씀해주시면 되겠다.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이다. 중앙감사위원회가 총학생회나 중운위와는 완전히 별개로 구성된 단체인지 먼저 여쭙보고 싶다.

부총: 정확히는 중앙운영위원회와 논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독립기구로 알고 있다. 회칙에 따른다고 하면 중앙운영위원회의 산하기구로 되어있는데 그 단체의 특성을 봤을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업무를 지휘하는 개념은 아니고 중앙운영위원회와 논의와 협력관계 속에서 사무를 진행하는 단체인걸로 저는 알고 있다.

간호.정: 중감위 회칙상 모집기간 내에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7일을 추가 모집을 공고하다가 상의 하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결정해서 만약에 추가모집을 한다면 바로 내는 게 좋을 것 같고 간호대는 추가모집 회칙 상에 접촉되는 부분도 없고 지금 지원자도 없기 때문에 추가모집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

부총: 네 그러면 일단 추가 모집을 진행 할지에 대해서 거수로 의견을 표현해주시기 바란다. 추가모집을 지원 하는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단위는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혹시 회칙얘기를 하면서 거수하기 전에 사과대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지?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에 따르면 제 20조 선발 9항에 위원장의 유고 및 사퇴 시 잔여 임기가 100일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 제 20조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되 날짜와 기간을 필요에 맞게 중앙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단라는 조항이 있는데 일주일 연장하게 될 경우 잔여 임기가 100일이 안 남을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21조 임기에 따라서 임기가 이번년도 11월 30일까지인데 지금도 100일이 간당간당해서 잔여임기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보아야한 다는 의견이다.

부총: 지금 사무국장님이 말씀해주시기로는 11월 30일이 임기 기준일인데 이미 잔여 임기가 100일안으로 들어온 상황이라 다음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제가 지금 회칙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100일안으로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사과.정: 100일 안쪽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아있는 부분은 딱히 남아있지 않다. 다만 재선발에

대한 유고 및 사퇴 시 재선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100일 이상일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100일 이내에 대해서 따로 명시하는 조항은 없다.

사과.부: 사과대 관련해서 추가 의견 드리자면 사실 지난번 논의할 때 해당 회칙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중감위원장 사퇴에 대해서 원래 기존에는 8월 말까지 임기를 다 하고 업무를 다 하고 사퇴하겠다고 하셨는데 해당 회칙 때문에 저희가 먼저 사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중감위 회칙에 따르면 10월 첫 평일부터 중감위원장을 새로 모집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다음 뽑히시는 차기 중감위원장분은 9월 한 달 업무를 생각하고 선출을 해야 하는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운위 내부에서 중감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부총: 일단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모두 의견을 들었는데 일단 잔여 임기는 이미 100일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회칙에 따르면 10월에 신규 위원장을 선출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을 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한 달 뿐이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된 것 같다. 여기서 또 추가 의견이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어쨌든 저희 결정에 따르는 것 같으니까 모집 기간을 연장할지, 공석을 유지할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더 나눌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가 아까 거수를 부탁드렸는데 기록이 필요해서 채팅으로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채팅창 확인해보시고 채팅창에 써진 내용에 따라서 의견 표명해주시면 되겠다. 투표 안하신분 있는지? 정식투표가 아니라 다 하실 때까지 수를 세볼 필요는 없고 모집기간을 연장해서 받아보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아서 그러면 모집품이랑 게시글을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공지를 하고 단위별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 2. 신입생 예산 사용 논의

- 단위별 계획 공유
  - 계획사항 주무부처에 전달 및 검토 예정 (학생처)

부총: 저번 주에 한주동안 단위별로 최종적인 계획을 수립 하셔서 이번 주에 공유를 하자고 부탁을 드렸다. 그래서 단과대 순서별로 제가 여쭙보도록 하겠다. 간호대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간호대는 단위 내에서 논의한 결과 20학번, 21학번 2개 학번 모두 대상으로 집행을 할 예정이고 새내기배움터의 취지를 살려서 학과 적응과 간호 학생사회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학년이 다르고 간호대 내에서는 2학년이 실습을 준비해야 되는 임상실습을 준비해야 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20학번, 21학번 각각 다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참여자에 한해서 기념품을 증정하려고 하고 있다.

부총: 감사하다. 경영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경영.부: 경영대도 20학번, 21학번 대상으로 집행할 예정이고 학우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참여자들 대상으로 기념품 제공할 예정이다.

부총: 네 감사하다. 사범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사범.정: 사범대도 20, 21학번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저희는 이미 1학기때 비대면 새내기배움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을 가지고 20, 21학번들 대상으로 돗바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시다.

부총: 사과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사과대는 20,21학번 대상 예산 전부 다 교보문고 5만원권 금액권 등 도서금액권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시다.

부총: 약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약학.정: 네 약학대학도 20학번, 21학번 대상으로 물건 배부 할 예정인데 일단은 돕바가 될지는 아직 미결이라서 이걸 교학지원팀과 얘기 후에 결정을 하고 진행 할 예정이다.

부총: 인문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20학번, 21학번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고 기념품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할 예정이다.

부총: 통일공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대 플랜A는 20,21대상으로만 집행을 하지 않고 2학기에 있을 공대축제 3일 동안 진행 될 텐데 축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 참여자들에게 지급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무래도 공대 특성상 바쁜 고학번보다는 20, 21이 참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학교생활을 누려보지 못한 20,21학번들에게 축제라는 것을 더 활성화 시켜 주는 게 새내기새로배움터 자원 예산의 취지에도 맞다 라고 판단을 했다. 만약 이 플랜 A가 통과되지 않으면 인문대처럼 20,21 대상으로 기념품을 주는 형식으로 지급 할 예정이다. 이상이다.

부총: 일단 오늘 참석하지 않은 단위는 제가 개별적으로 여쭙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학생지원팀에 전달을 해놓겠다. 그럼 이제 세부적인 집행 계획이나 내용이나 상품 등에 대해서 확정을 하시는 대로 총 측에 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더 논의할 내용은 없고 앞으로의 논의는 일단 예산팀에서 일차적으로 새터 예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권한을 갖는 것이 학생처 및 학생지원팀이기 때문에 총 측에서는 학생처와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이제 단위별 계획을 공유를 해서 단위별로 예산지급까지 이뤄지게끔 앞으로는 진행을 하겠다. 이제 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운위 안건으로는 별도 사항이 생기지 않으면 논의할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넘어가겠다.

### 3. 장학제도 개정 관련 논의

- 총 집행부 의견 전달
- 단위별 의견 공유
  - 논의사항 주무부서와 검토 예정 (학생처)
- 안건 관련 주무부서 간 Meeting 여부 논의

부총: 먼저 비교과 기준에 대해서 총학생회 집행부는 약식으로 논의한 결과 현재 있는 비교과 마일리지제를 고안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해당내용을 화면으로 공유해드리겠다. 지난번에 레인보우 시스템을 설명 드리면서 활동과 마일리지에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해당 내용에 관한 제도이고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제도인 것 같다. 보시면 학교에서 등록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수료한 자에게 마일리지 적립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제도이고 보면 이미 해당 유형에 대해서 금액 지급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이 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집행부 의견이다. 일단 총학생회 집행부 의견은 이렇게 전달을 드리겠다. 잠시 지체가 되었다. 단위별로 논의한 의견을 수합하도록 하겠다. 그 후에 각 안에 대해서 주무부서랑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를 해보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간호대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거꾸로 가면 안 되는지?

부총: 거꾸로요? 그럼 통일공대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대는 근데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장학금 개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라 딱히 별다른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부총: 네 알겠다. 인문대 논의내용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총학생회 집행부와 거의 비슷한데 저희는 다빈치 인증 제도를 활용하되 이 제도의 틀에서 추가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까지 논의가 되었고 추가적인 논의는 중운위의 논의양상을 보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

부총: 약대 논의내용 공유해주시기 바란다.

약학.정: 지난번 회의처럼 똑같이 논의가 추가로 개진되지 않아서 지난주랑 의견이 거의 동일하다.

부총: 감사하다. 사과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사회과학대학은 비교과 장학금 신설과 복지 장학금 신설 중에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단위 내 의견 통합이 어느 것이 중점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위 내 의견이 통합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중운위 통해서 여러 단위와 의견 공유하고 장학제도 신설될 수 있으면 되겠다는 의견이다.

부총: 알겠다. 사범대 내용 공유해주시기 바란다.

사범.정: 사범대 말씀드리겠다. 사범대도 다빈치 인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다들 동의를 했는데 다빈치 인증 제도를 허용하는 것에는 동의했는데 다빈치 인증제도 내부를 보면 아르바이트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수정을 하거나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부총: 네 알겠다. 경영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경영.부: 경영대 논의결과 인문대학과 동일하다.

부총: 네 이제 간호대다.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저희 단위 내에서 특이하게 별도로 다른 의견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아까 사범대 회장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영역별로 되게 다양한 인증 영역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나 그런 자격증까지는 그렇다 해도 이게 성적중심으로 장학제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교과 이수나 어학성적 정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영역별로 채택을 한다든가 다빈치 인증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이 있었다.

부총: 네 알겠다. 일단은 총학생회에서는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오늘 단위 별 의견을 정리해보면 의견이 따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거나 결론이 안난 단위를 제외하고는 다빈치 인증제도를 활용을 하되 정량적 평가가 불가하거나 모호한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준을 보완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주무부서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넘어가겠다.

#### 4. 등록금환불 및 학사개선요구 관련 논의

- 등록금환불요구 관련 현황 공유
- 학사개선요구 관련 현황 공유 \*관련 내용 참조

부총: 마지막으로 원래 기타 안건에 있었던, 저희가 얼마 전에 등록금 환불과 학사개선에 대한 요구안을 통보를 했고 관련 현황을 파악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한다. 일단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서는 학생지원팀과 논의를 나눴고 학사개선 요구는 학사팀과 오늘 기회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는데,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학생지원팀을 통해서 행정부총장에 직접 결의안을 전달했고 결의안 전달이 지난주 후반부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반응을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학생지원팀 의견은 학교에서 등록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전해졌고, 지금 학생지원팀 차원에서는 재정정보 공개요구나 학교의 직접적인 설명과 관련해서 타부서에게 학생 의견을 전달하고 일정 정도의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달을 해줬고, 그 다음 내용은 학생지원팀의 의견으로써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요구안을 작성은 했으나 지금 등록금 환불 요구안은 기획처에 직접적으로 송부가 안 되고 계류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일단 학생지원팀은 재정정보 결의안을 지금 행정부총장한테 전달을 했고 만약 이 상황에서 기획처에 바로 요구안을 송부했을 때는 기획처에서 답을 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실무진 입장에서는 생각이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쨌든 등록금 환불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학교의 직접 설명이 차선의 목적이라 하면 지금 행정부총장에게 전달된 재정정보 결의안의 요구내용과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의안, 등록금 환불 순서대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총장의 관련 내용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까지 학생측이 시간을 줄 수 있겠냐는 의견을 줬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중운위에 소상히 전달하겠다는 정도로 논의는 마무리했고 이에 대해서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여쭙는 바이고 학사 개선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건부터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는 등록금 환불 요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그에 관해서 학생지원팀에서 실무자 측 입장으로 의견과 학교 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전달해준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수용한다 했을 때는 일단 일차적으로 행정부총장이 재정정보 공개 요구에 있는 학교 재정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에 관해서 의견을 내고 그에 따라서 행정부총장과 기획처에 등록금 환불 관련한 학생 의견을 전하고 학교에 등록금 환불이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상호간에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학교의 직접 설명으로 방향을 틀어서 두 재정정보 관련 요구와 등록금 환불 관련 요구를 같은 맥락으로 묶어서 진행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 단위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부총장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여쭙보는 것이다.

간호.정: 학교의 직접 설명이 차선의 목적이 아니라 내용을 전달할 때 분명히 포함된 내용인데 차선의 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등록금 문제가 시기가 늦춰지면 질수록 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도 늦춰져서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요구안은 당연히 전달이 되어야 하고 학교가 무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해서 무대응을 두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건데 무대응이 그게 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무대응으로 나오신다면 무대응으로 나왔다는 것을 학우분들께 알려야 되고 무대응에 맞춰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논의를 직접 설명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학생 대상으로 설명해달라는 것이지 또 대표자들 모아두고 학교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무대응으로 왔을 경우에 다시 한 번 답장을 독촉한다든가 안 오면 저번처럼 맞춰서 직접 찾아가든가 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직접 얘기하자고 하는 자리가 몇 번 있었으나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굳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학교에서 나오는 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다.

부총: 저도 개인적으로는 간호대 의견에 백 번 동의하면서도 그런 것 같다.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재정정보 요구와 등록금 환불 관한 요구 두 개를 꼭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나름의 전략적 판단의 일종으로, 제시를 드린다고 보다는 판단의 일종으로 지금 관련한 안이 나왔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다.

간호.정: 전략적인 게 어떤 게 전략적인지 모르겠다. 전달하고 받을 답장과 직접 설명을 통해 받을 답이 똑같지 않나? 시간만 더 늦춰지는 것 아닌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달은 해놓고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린다.

부총: 일단은 다른 단위 의견도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다. 의견이 있는 단위는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재정정보 결의안에 대한 행정부총장의 답변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제스처를 동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 안이 나왔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총학생회의 확정된 의견으로써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위별로 저희끼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두 가지로 논의 방향을 축약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간호대 의견처럼 일단 요구안을 전달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하자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내용을 일부 받아들여서 행정부총장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나 반응을 토대로 등록금 환불 요구를 이어가자는 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두 가지를 생각해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다. 제가 혹시 논의를 잘못 끌고 있으면 의사 진행에 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약학.정: 약학대학 간호대 의견에 동의한다.

사과.정: 사회과학대 의견 말씀드리면 말씀해주신 것 중에 후자인 행정부총장과 학교의 답변을 듣고 추가적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도 좋고 재정정보 관련 요구와 등록금 환불 요구를 함께 가져가는 것에도 동의한다. 근데 답변을 언제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최소한 저희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기한을 중순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 두고 그 기한까지 회신이 오지 않을 시 재송부를 한 다든지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기한을 저희가 설정해 놓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부총: 좋은 의견인 것 같다. 그러면 정리를 다시하면 일단 행정부총장이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할 기한을 자체적으로 설정해두고 그 기한을 넘었다고 했을 때는 요구안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동의 의견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보충의견 있으면 받겠다. 그 후에 저희끼리 언제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는지 말해보도록 하겠다. 의견이 따로 없으신 건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답변을 기다려보고 그 일자를 넘었을 시에는 원래 계획대로 요구안을 바로 기획처에 송부하는 내용이다.

통공.정: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기한이라는 게 저희가 그쪽에 전달하는 게 맞는지? 저희만 임의적으로 정해놓는 게 아니라.

부총: 네 전달하도록 하겠다.

통공.정: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는 전달할 수 있는데 본부가 답을 정해 놓고 있어서 무대응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결국 무대응으로 나오지 않을까? 결국 시간만 늦어지는 건 아닌지 똑같이? 저도 어떻게 대책은 안 떠오르는데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렸다.

부총: 저도 그런 걱정을 무시할 수는 없고 제가 뭐가 효율적이다 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전달을 드린 거고 이에 관해서 두 단위에서 의견을 말씀해주셨고, 각기 요구안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과 어느 기한을 기준으로 절충안을 잡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른 단위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위별로 생각하시는 대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인문.정: 인문대학 질의가 있는데 혹시 결의안은 재정정보 결의안을 말씀하시는 거고 요구안은 저희가 일전에 공문으로 만든 학사와 등록금 환불 요구안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부총: 네. 결의안은 재정정보 결의안이고 요구안 중에 학사 요구안은 주무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전달이 되었고 등록금 환불 요구안을 말하는 것이다.

인문.정: 정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쭙보자면 등록금 환불 요구안은 지금 학생처에는 전달이 됐고 학교 본부에는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된 것인지?

부총: 네. 최종 수신처가 기획처로 되어있고 학생처는 지금 이걸 가지고 있고 학생처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계류를 하고 있는 학생처의 입장이 지금 공유자료와 같다고 말씀드렸다.

간호.정: 간호대 재질문 드리겠다. 전자와 후자에 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후자가 어떤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더 좋은 것인지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결국 시간을 두고 답장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

부총: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 그렇다는 부서의 판단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부서의 판단에 어떤 부서와 부서 간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이런 공문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추후대책을 논의해보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체할 수 없으니 요구안은 요구안대로 송부를 해야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일정 기준일을 정하자 어떤 의견이든 말씀해주시면 저희 중운위 다수의 의견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말씀드리겠다. 인문대학은 일단은 학교부서 의견을 고려할 필요는 중운위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문대학은 요구안이 아직 학생처에 머물러 있는 사실에도 사실은 좀 불만이다. 그래서 중운위가 직접 요구안을 빠르게 기획처에 직접 가서 전달을 하던 직접 발송을 하던 방식을 취해서 요구안을 전달을 하고 요구안에 맞는 협의체 개설이라든지 요구안과 관련된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기한 설정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한 내에 어떠한 답변, 어떠한 진전이 없을 경우에 이후에 어떤 대책을 만들어 갈지도 중운위에서 일단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호.정: 간호대 인문대와 의견 같다.

경경.부: 경경대도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동연.부: 동연 동의한다.

부총: 그러면 요구안은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학생처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전달을 하고, 부서 간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자리 마련만 부탁하고 중운위 차원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밀고 가겠다.

인문.정: 지금 중운위에서 언제 협의체와 요구안을 전달할지는 일단 내일 학생처에 한번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문의를 주시고 그 이후에 중운위의 의견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부총학생회장님께서 학생처에 문의를 하고 이제 협의체를 마련해 주실 것인지 학생처에서 아니면 기획처로 직접 발송할, 학생처의 어쨌든 의견을 들어봐야 하니까 내일 그거를 여쭙아서 중운위에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공유가 되면 언제까지 답변을 받을지에 대해서 중운위 차원에서 카톡이든 임시 회의든 의견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답변도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운위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면 될 것 같다.

부총: 그렇게 할 예정이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이 주제는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학사개선 관련 요구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일전에 파일을 보내 드렸는데 지금 열어서 25분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중간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란다. 다 확인하셨는지?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문서로 정리해 드렸고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통공.정: 혹시 지금 뭘 논의하는 건지?

부총: 일단 요구안 관련해서, 논의안 내용은 여기에 담겨있고 제가 밑에 정리를 드리면서 추후 방안에 대한 제 생각을 같이 정리해 드렸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나 별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간호.정: 이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검사검사 찾아가면서 받은 답변인데 공유도 불가능한 거 아닌지?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라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다.

부총: 이 내용이 외부로 공개될 수 있는지에 따라 논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지?

간호.정: 아니다. 공식적으로 학교의 대표 의견으로 온 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논의를 정리한 부분이라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논의해야 될 지를 모르겠다.

부총: 일단 논의 자체는 비공식이었으나 어쨌든 논의에 학사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학사팀이 학사 관련 최종 부서이므로 최종 부서의 공식 의견과 비슷하다.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게시하거나 할 때는 한변정도 언지를 해줘야겠지만 이 내용이 본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 말로 정리를 다시 드리면 저희 요구안 중에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실험/실습 및 실기 수업 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학사팀에서 실험/실습 및 실기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과대에서 주도적으로 실험/실습/실기 수업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중요한 기자재나 시설 운영과 같은 거, 예를 들면 학생들 실기를 위한 체육관을 체교과에서 직접적으로 여부나 이런 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과대랑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실험/실습/실기에 관한 건 해당하는 단과대랑 총이랑 해당 단과대의 집행부와 학장과 개별적으로 1차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고 수업 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일단 필수 공지에 대한 표준안은 마련하겠다는 것과 중요 공지에 대한 문자 발송 관련해서 교원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충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나 아니면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주시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강의물 재사용에 관련해서는 일단 학사팀에서 명확하게 어떤 의견 제시를 못한다. 그 동안 계속 동의를 했으나 일단 강의물 재사용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학사팀에서 강제나 조치를 마련하려면 강의실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강의 재사용되고 있다는 명확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본부에서 유일하게 근거로 사용하는 강의 피드백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일일이 수업을 수강하면서 모니터링해가면서 강의 재사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지책이라고 하면 교수 개인에 대한 패널티나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임으로 학사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추후부터 강의 재사용 관련 사례를 해당 교수나 단과대랑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형태가 되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했고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다른 대책이 필요하단 이런 의견 자유롭게 주시길 바라는 것이었다.

간호.정: 이 요구안에 쓴 요구들이 전체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서 중앙단위로 요구를 한 건데 단과대에서 유연하게 하는 것이 단과대와 학생회가 협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습시설과 교육 기자재에 있어서 단과대가 실질적 결정 및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단위의 경우에는 제가 가서 물어봤을 때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권고 사항이 있다, 중앙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 문제는 그러면 누가 해결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각 단위가 따라가게 되는데 단과대가 실질적인 결정 및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총: 일단 후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앙이 저희가 학사부서에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학사부서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만들어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앙으로 두고 거기서 내리는 권고나 지침에 따라서 시설이나 기자재 사용과 관련한 것을 이제 단과대가 지침을 참고해서 정하게 되어있고 간호대학에서 중앙의 권고 사항에 따라간다고 하는 건 그런 맥락에서의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된다. 그리고 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체 단위에 대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실험/실습에 관련한 기자재나 설비는 실험/실습이 있는 단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중사본이 전 단위가 모여서 합동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구조상 실험/실습에 관한 지침을 따로 내리기가 불가능 하다는 학사팀 의견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걸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중사본의 지침이 있지만 단과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과대랑 실무적으로 협상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겠단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보내 드린 것이다.

사범.정: 사범대 학생회장이다. 의견 드러도 될지? 학교 시설 및 교육 기자재 사용에 대해서 사범대 측에서는 1학기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저희 중사본의 지침 자료를 받았다. 사범대 측에서도. 보고 실습/실기 기자재 사용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한 건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다른 단과대 학장님이나 체육교육과 학장님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중사본 지침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유동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리더스 포럼이나 단위요구안 해서 이렇게 올리면 또 거기서는 단과대와 협의를 하라 하고, 단과대 또 가면은 단과

대에서는 이렇게 정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답변 자체가 학생들의 의견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한다. 어차피 서로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토스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부서든 확실한 지침이 없으면 없다 아니면 고려를 해서 저희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단과대 학장님이나 단과대 대표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의견이 든다. 그래서 이 답변 결국에 저희는 또 돌고 도는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까 하고 여쭙보았다.

간호.정: 제가 말한 부분과 동일한 부분인 것 같다.

부총: 그러면 관련해서 실험, 실습, 실기에 해당하는 단위의 상황을 여쭙려고 했고 두 단위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학사팀이나 교무처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파악을 했고 그러면 단과대에서는 계속 중사본 핑계를 댄다고 했을 때는 교무위원회나 중사본에 이 요구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후에 이제 양상을 보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란다. 실험/실습 관련해서.

사범.정: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약간 핑계를 댄다 라고 이야기 한 건 아니었고 단과대나 각 과의 학장님들도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인 것 같다. 제가 얘기하는 게 핑계 식으로 들리셨으면 조금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다.

부총: 단어 선택을 잘못된 것 같다. 어쨌든 단과대에도 중사본 지침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단과대와 따로 협의를 해도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으로 이해했다.

사범.정: 감사하다. 그리고 논의 진행해주신 것도 시간 내주셔서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부총: 그리고 수업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는 일부 조치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강의물 재사용 관련해서는 계속 똑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학생자치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지 단위별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일단 학사팀은 강의 재사용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게,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재사용이나 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의견이다.

인문.정: 아까 까지는 실험, 실습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지금 강의 재사용이라든지 수업 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걸 논의하는 것인지?

부총: 네.

인문.정: 일단 인문대학 의견을 말씀드리면 비공식 회의 내용 정리본이나 학교 본부의 답변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학교 본부는 해줄 수 없다 그러니 단과대와 학장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러한 느낌이 저희는 없지 않아 강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다. 사실은 아까 모든 단위가 얘기해 주셨지만 단과대 학장한테 이걸 얘기하면 학교 본부에서 이렇게 결정하라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러한 논의의 순환 고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중운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학교 본부와 이렇게 같이 해보자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달라 라고 좀 더 구체적인 요구안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다. 수업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 이러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 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더 좋다는 게 인문대학의 의견이고, 강의 재사용 같은 경우도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갈 지 논의를 하면 될 것이라 저희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인문대학은 짧게 생각을 가지면 저희 단위 내에서 얘기한 바로는 강의 피드백은 강의가 다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학교 본부에서 어떠한 신고창구 같은 것을 만들어 주면 학우분들께서 강의 재사용이라든지 수업 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부분을 신고 창구에 신고를 하고 그걸 학교 본부에서 강력하게 교수님께 전달해주는 방향이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요구해봤자 교수님은 절대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학교 본부에서 신고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에

서는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 약간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잡아가는 방향으로 요구를 해야지 그냥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봤자 학교 본부는 계속 단과대와 알아서 협의를 해라 라는 식으로 나올 것 같다. 이러한 방향으로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부총: 논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하신대로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의견 전달해 주신 건 강의 재사용 기준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대책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 본부에서 직접 사례를 접수하도록 창구를 만들게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다. 일단은 수업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치를 만들어 본다고 하니 지금 논의가 계속 진척이 안 되는 강의 재사용 중점으로 학교에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요구할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논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인문.정: 그래서 일단 강의 재사용 같은 경우는 사례들이 어느 정도 수합이 됐다고 생각한다. 단과대별로 강의 피드백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한 사례들을 정리해서 기준을 학교에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기준에 부합했을 때 어떻게 학교에서 대처를 해줄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 창구라던지 여러 가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요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인문대학의 생각이다.

부총: 네 감사하다. 혹시 또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그 전에 혹시 단위별로 신고창구나 강의 피드백을 하시는 지 여쭙봐도 되는지? 강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을 따로 진행하는 단위는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순서 상관없이 말씀해주시면 된다.

경경.부: 경경대는 온라인 강의 피드백 창구 학기 중에 진행하고 있다.

간호.정: 간호대는 매 학기 교수 학생 간담회 전에 설문 조사를 해서 교수 학생 간담회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전달 드리고 있다.

사범.정: 사범대도 강의 모니터링을 학기 중에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교직과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강의 피드백을 받는데 저희는 시험이 끝나고, 학기가 끝나고 피드백을 드리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중간고사 전, 기말고사 전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학기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학기 중에 상시로 온라인 강의 신고 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고 신고가 나오면 그때그때 개별 교수님에게 직접 연락을 드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크게 효력이 없어서, 학생이 직접 얘기를 하는게 전달은 드리지만 큰 효력은 없다.

부총: 다른 단위는 따로 없으신 것인지?

통공.정: 공대는 학기당 두 번 이상 자체 강의 평가 학생회에서 진행해서 교수님들에게 학부장님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부총: 더 없으신 것 같고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강의 피드백은 교양 대학만 담당하기 때문에 단과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본 것이고 방금 말씀해주신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진행하시는 단위는 강의 재사용 관련한 사례나 수합된 게 있으면 정리해서 총 측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번 주 중으로. 주시면 내용이랑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랑 정리해서 강의 재사용을 주제로 잡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수립해 보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 강의 재사용 대책 관련해서 더 의견 있으시면 받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다. 네 넘어가겠다. 표본이 있는 단위는 꼭 총 측으로 전달해주시길 바란다. 회의가 좀 길어졌는데 죄송하고 그 다음에 기타안건으로 넘어가겠다.

## 4 기타안건

### 1. 가을축제 진행 관련 보고

깃발입장식) 콘텐츠 확정되어 출연 요청

단과대 노래경연 프로그램) 콘텐츠 공유 및 홍보, 소속원 참여 유도에 협력 요청

## 2. 학칙 개정 관련

총무팀 답변 대기 중.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 학칙개정 관련해서 홍보물 세척이 총무팀 관할로 되어있기 때문에 학지팀에서 총무팀 답변을 대기 중에 있고 번외로 지금 간호대학 뒤편으로 건물 신축 문제 때문에 총무팀 일처리가 늦어진다는 정도의 부서 상황을 전달했다. 여튼 총무팀 답변이 오는 대로 중운위 회의에 들어와서 남기겠다는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저번 회의 때 설명 드린 축제 관련내용은 제가 단과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유는 지금 단과대별로 축제가 있고 또 다른 실무가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뭘 설명 드리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정리를 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세부 계획을 확정중이라 변동될 수는 있다. 두 가지이고 깃발 입장식 관련 콘텐츠가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출현을 부탁드립니다 것이고 나머지는 일전에 말씀드린 단과대별 노래 경연 대항전 같은 경우는 홍보와 공유 위주로만 협력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 사전에 전달 드리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대로 전달 드리겠다. 준비한 안건은 여기까지이고 또 기타 안건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질의 있는데 가을축제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부총: 9월 마지막 27일로 시작되는 주로 일단 계획하고 있다.

간호.정: 감사하다. 단위 요구안 관련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부총: 단위요구안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는데 오늘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고 내일 일단 학생부처에는 내일 물어보도록 하겠다. 근데 단위요구안이 각 부서로 이관이 돼서 다시 합쳐지는 형식이라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내일 꼭 문의 해보겠다.

간호.정: 감사하다.

경경.부: 경경대 질의 있는데 새내기 새터 예산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획안 보내 드리면 언제쯤 교학지원팀이랑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교학지원팀으로 언제쯤 넘어갈지 답변해주실 수 있는지?

부총: 일단 그것도 학생처에 지금 단위별 대략적인 계획을 전달하고 나서 따로 답변받은 바가 있으면 전달해 드리고 되도록이면 내일 중으로 그리고 물어보신 건 내일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인문.정: 인문대학 회의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데 사실 중운위 안건지를 보면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어떠한 골자로 논의가 진행됐는지를 사실 안건지만을 보고 알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사전에 저희끼리 생각을 이야기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총학생회장님이 공유해주신 ppt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고 어떠한 골자로 논의가 진행 될 건지를 좀 알 수 있어서 ppt의 내용도 좀 중운위 안건지에 삽입을 해주면 회의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 드린다.

부총: 다음 회의부터 그렇게 진행 하겠다.

사과.정: 사과대 문의사항 있는데 지난 회의에서 깃발 입장식 각 단위에서 찍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진행된 거 맞는지?

부총: 아니고 저희가 일단 축기단이랑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 일단 촬영이나 실무는 축기단에서 진행을 하고 출연요청을 드리는 것이다.

사과.정: 네 알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새터 예산의 기획안이라고 하심은 각 단과대에서 사용하는 사업기획안 양식에 그냥 작성해서 드리면 되는 것인지?

부총: 일단 그것도 내일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일단 총은 학생처랑 얘기를 하는데 학생처에서 그러니까 단과대가 교학지원팀과 상의하는 자료만큼의 구체적인 기획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기한을 전달해 드리고 아니면 그냥 교학지원팀이랑 상의하실 때 만드셔서 쓰시면 될 것 같다.

사과.정: 네 답변 감사하다.

부총: 네 더 질의나 의견 있으신지? 네 없으신 것 같다. 회의가 다소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하고 다음 주 부터는 총학생회장이 들어오셔서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하겠다.

### <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